

'책 읽는 문화'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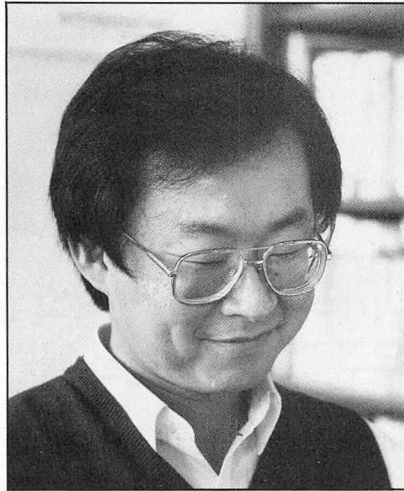
도서자동판매기 사업 추진하는 염재웅씨

'돈'을 넣으면 '책'이 떨어지는 '도서자동판매기'가 오는 9월 중순께 일반에 선보인다. 책이란 본래 서점을 찾아다니는 설레임에, 이책저책 뒤적이며 '날개' 째 붙은 '살점'을 때먹는 재미, 그리고 고심끝에 그중 하나를 골라 가슴팍에 끼고 나올 때의 뿌듯함 등 사기까지의 과정이 여느 상품구매 때와는 달리 특별한 맛이 있다. 따라서 인구비례로 볼 때 결코 적은 수가 아닌 '서점'을 놔두고, 다른 상품도 아닌 책을 자판기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 반응과, 시간이 없는 독자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됨으로써 독서인구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추진자 염재웅(30·시대평론사 대표) 씨가 우리네 출판·독서문화에 새바람이 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고 진보적인 출판인이어서 궁금증은 더해진다. 그는 울초 임규찬·엄혜숙 등 젊은 문학평론가 4인과 함께 민중·통일·여성해방문학의 관점에서 우리시대 잘 팔리는 책들을 정밀진단, 그 맹독성을 실랄히 비판한 바 있으며, 그 자신 역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마광수 저)의 비틀린 여성관을 날카롭게 꼬집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자판기'가 대중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면, 가장 대중적인 책들을 흑독하게 평했던 그로서는 이 안에 어떤 책을 넣어 '독서계몽운동'을 일으킬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자판기 구상은 왜 하게 되었나.

“기본취지는 ‘좋은책’을 ‘손쉽게 구입해 읽자’는 데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칸에서 스포츠



신문을 들고 보듯 대신 책을 볼 수 있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리는 차안에서도 읽을 수 있게 활자나 판형이 바뀌어져야 한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완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내용이 짧아야 한다. 즉 지금의 형태로는 독서인구를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편집에 변화를 주고 자판기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 적극적으로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단행본 형태로는 자투리시간에 꺼내 읽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책의 형태란 어떤 것인가.

“대개 단행본이라면 200자 원고지 1500매 정도가 보편적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활자가 커지고 뒷줄흘리기 등 편집에 변화를 주어 500~600매 정도의 분량 적은 책이 잘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읽을

수 있게 가독률을 높이는 것이 최근의 출판흐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책크기엔 전혀 변화가 없는 점인데, 우리는 책크기를 과감히 줄여 진정한 의미의 문고판을 만들어볼 계획이다. '지하철문고'라 이름했는데, 차분히 책상 앞에 앉아 읽는 책이 아니고 서서도 불편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단행본과는 여러모로 다를 수밖에 없다.”

—계획을 듣다보니 '새로운 유통형태'보다 '새로운 출판형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고, 그 새로운 출판물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를 찾아다니는 방법으로 '자판기'란 매개를 필요로 한 듯한데 '지하철문고'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해달라.

“기존 문고판의 크기에 분량은 250~300매(200자)로 가격은 권당 1400원선이다. 하루 20분씩 3~4일이면 다 읽고 던져버릴 수 있는 부담없는 책으로 가로쓰기 원칙에 일러스트나 화보 등으로 보기쉽게 꾸밀 것이다.

내용은 주택·토지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경제·소비자·환경 등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일정한 시각에서 정리한 리포트물, 그리고 20~30대 사무·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실용정보, 즉 창업가이드나 전세자금마련법 등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내서, 또 사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해설 등에서 문학·어학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담을 계획이다.”

—진보적이고 건강한 감수성에 기초한 책들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지하철' 독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독자의 수준을 믿는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무렵인 지난 4월, 우리가 주독자층이라 여기는 사무직노동자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쳤다. 일반국민들에 비해 평균 6배의 독서량을 보이는 그들은 우리사회 현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그들이 곧 베스트셀러를 창출하는 장본인들인데, 타출판사의 '잘팔리는 책'들도 자판기에서 판매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시대평론사에서 만든 지하철문고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제도권 내의 베스트셀러와 경쟁할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책을 만드느냐에 있다고 본다.”

—현재 '지하철문고'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고 자판기의 장소 섭외는.

“오는 9월8일 출현4층 강당에서 지하철문고 출판기념회와 자판기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판기 1대에는 15~30종의 책이 총 450권 정도 내장된다. 책을 만들고 공급하는 일은 시대평론사가 하고 기계제작 및 보급은 한국도틀사가 맡았다. 지하철공사와는 아직 협의중이나 낙관적으로 본다. 우선은 사무실이 밀집한 대형건물, 대학도서관에 400여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서자판기의 등장은 '책읽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한 출판인의 의지가 새로운 출판형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판매방법으로 독자를 찾아나선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가 새로운 독서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해본다.

—정혜옥 기자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수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사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어>이야기—
● 농부<마이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 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조일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것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음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